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



▶ 5회 예고
왕비의 견제로 이발소 잡일을 하게 된 다르마는 이발사 중 한 명인 왕비의 심복에게 곤잘 구박을 받는다. 그러나 다르마는 몰래 울면서도 잘 참아낸다. 마침내 이발사가 된 다르마는 빔비사라왕을 만난다.

다르마, 이발소로 보내지다

자나사나가 이중 목책을 지나 외성 동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빠딸리뿌뜨라 외성 동문의 크기는 짬빠성의 성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외성 동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누각에 서 있던 수문장이 달려나와 자나사나를 맞이했다.

"구루시여, 어서 오십시오.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잘 모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수문장은 아지비카교 승복을 두른 자나사나를 바로 알아보았다. 이는 빔비사라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이 몸에 걸친 승복은 말할 수 없이 남루했다. 승복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겨우 가슴과 엉덩이를 가렸다.

자나사나는 아지비카교 사원으로 곧장 걸어갔다. 사원은 빠딸리뿌뜨라 내성 안의 궁궐 맞은편 언덕에 있었다. 외성에 사는 주민들의 집은 보잘것없었다. 거적을 둘러쓴 움막이 대부분이었다. 움막에서 흘러나온 하수는 악취를 풍겼다. 공동우물이 드문드문 있고, 성민들은 공동우물 터 웅덩이에서 손발을 씻고 빨래를 했다. 시커먼 상체를 드러낸 사내와 젖가슴과 엉덩이만 가린 여인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상점들은 도로변에 다닥다닥 늘어서 있었다. 토기점은 항아리부터 그릇, 아기손바닥만 한 짜이잔까지 토기들을 한가득 진열해두고, 한쪽에서는 여인 두세 명이 토기를 빚었다. 대장간에서는 농기구나 칼을 팔았고, 포목점에서는 사내들의 흰색 도티, 여인들의 붉고 노란 사리와 숄을 줄에 매달아놓고 호객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을 파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다르마는 은팔찌와 은반지를 하나씩 짬빠성을 떠날 때 어머니가 준 돈으로 샀다.

"다르마여,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잘 봐요."

"왜 그러죠?"

"왕족만 사는 내성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

외성과 내성에 사는 사람의 신분은 달랐다. 외성에는 바이샤 상인과 농사꾼, 수드라 이발사와 대장장이, 달리뜨 백정 등이 살지만 내성에는 브라흐민 왕족과 끄샤뜨리아 귀족, 수행자들만 거주할 수 있었다.

내성 성문은 외성의 그것보다 작았다. 내성을 두른 석성도 외성에 비해 낮았다. 경계도 삼엄한 외성 성문과 달리 느슨했다. 콧수염을 팔자로 기른 수문병사가 신분과 용건을 낱낱이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만나러 가오."

"아! 왕자님들을 가르치는 구루를 만나러 가는군요. 어서 들어가시오."

빠딸리뿌뜨라 성에서는 빵갈로바뜨사 이름만 대면 어느 문이든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수문장들은 왕자에게 줄을 서려고 지나친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수문장이 소리쳤다.

"아지비카교 사원까지 안내해 드려라!"

"난 여러 번 드나든 사람이오. 그러니 굳이 안내할 것은 없소."

그래도 수문장은 막무가내였다. 눈을 부라리며 수문병사에게 지시했다.

"이놈아! 저 여인 분의 보따리라도 들어주라는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문병사가 다르마의 보따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들었다. 그러자 자나사나가 난처해하는 다르마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성과 외성의 집들은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 내성 안은 극락세계 같았다. 베란다가 달린 집들은 깨끗하고 우아했다. 모든 집에는 사각의 붉은 벽돌담이 있고, 벽돌담 안의 정원에는 만발한 부겐빌리아 꽃과 위엄 있는 공작야자수가 서너 그루씩 자라고 있었다. 도티와 사리를 입고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은 밝았다. 신분이 높은 것 같은 한 여인은 서너 개의 팔찌를 차고 뽐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두 발목에 찬 발찌들이 부딪치면서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윽고 눈앞에 아지바카교 사원이 보였다. 사원은 훵하니 지붕이 없었다. 벽돌로 바닥을 깔아 기도하는 구획만 표시해 놓았을 뿐이었다. 숙소는 사원 옆의 숲인 모양이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반얀나무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그곳은 빵갈로바뜨사의 기도처라고 했다.

"우리 수행자들은 잠잘 때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빵갈로바뜨사 구루는 저 반얀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지요."

"자나사나 구루께서도 노숙을 하세요?"

"동굴에서 나오면 노지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지요. 다리를 뻗고 자본 지 오래됐어요."

수문병사가 보따리를 기도하는 벽돌바닥 위에 놓고 돌아갔다. 빵갈로바뜨사가 기도하고 잠을 잔다는 반얀나무의 허리에는 진언이 새겨진 조그만 깃발들이 허리띠처럼 둘러쳐 있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보이지 않았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궁으로 들어가 빵갈로바뜨사를 만나고 오겠소."

"구루시여, 저도 따라갈래요."

"안 되오. 헛걸음할지 모르니까."

자나사나는 다르마를 조금이라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르마는 머잖아 왕비가 될 몸이었다.

"다르마여,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좋겠소. 내가 빨리 다녀오겠소."

그런데 바로 그때 빵갈로바뜨사가 숲길 쪽에서 오고 있었다. 다르마가 먼저 보았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약간 절뚝거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오랜 좌선으로 무릎관절이 헐어 생긴 습관이었다.

"구루시여, 저기 빵갈로바뜨사 구루가 오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빵갈로바뜨사는 황금색 비단승복을 입고 있었다. 자나사나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자 빵갈로바뜨사가 말했다.

"자나사나여, 무얼 그리 놀라시오? 대왕께서 하사하신 승복이라오."



"아지바카교 수행자가 그런 비단승복을 입어도 되는 것이오?"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대신들이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더기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해서 할 수 없이 입고 있다오."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나사나가 할 수 없다는 듯 받아들였다. 빵갈로바뜨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다르마여, 부모님은 잘 계시오?"

"네, 엄마께서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계시니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공양 받은 것을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때라오. 내가 대왕의 마지막 왕비에게 말해두었소. 조금 있다가 왕비를 만나러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구루시여."

빵갈로바뜨사가 말하는 왕비는 15번째 젊은 왕비였다. 왕비가 될 여인이 들어오면 마지막 왕비가 단속을 했다. 첫 번째 왕비인 정비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이하 왕비들 사이에 서열과 질서를 잡기 위한 궁내 전통이었다. 빔비사라왕의 마지막 왕비인 15번째 왕비는 춤도 잘 추고 미모가 빼어났다. 다만, 질투심이 많은 데다 언행이 가볍고 궁녀들을 모질게 닦달하여 잡일을 하는 여종들끼리 수군댈 때는 '왕비님'이라고 하지 않고 '빠빠님'라고 불렀다. 빠빠란 평민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악행이란 뜻이 있었다.

빵갈로바뜨사가 궁으로 가면서 말했다.

"다르마여, 왕비가 젊어서 때로는 언행이 민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잘 참아야 해요."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브라흐민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네 인생은 짬빠성에서 오는 뱃길처럼 순한 길도 있고, 사나운 길도 있고, 평온한 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성에 이른 것은 그 모든 길을 다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만나든 좌절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현명하신 브라흐민!"

"저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길이든 좌절하지 않겠다고요."

자나사나가 합장하며 말했다.

"다르마여,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소. 그러니 짬빠성으로 돌아가겠소."

"고맙습니다, 자나사나 구루시여. 이 걸 부모님께 전해주셔요."

다르마가 호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외성에서 산 은팔찌와 은반지였다.

"꼭 전해드리겠소."

"팔찌는 엄마 것이고 반지는 아버지께 드리셔요."

자나사나는 들어왔던 내성 성문으로 다시 향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무덤덤하게 자나사나와 헤어졌다. 그러나 다르마는 자나사나가 돌아서 등을 보이는 순간 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다. 짬빠성으로 돌아가는 자나사나가 부럽기도 하고 부모 생각이 나서였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음이 곧 심란해졌다.

'젊은 왕비님 언행이 민망하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 언니처럼 친절하지 않을까? 아니야, 무조건 트집을 잡아 나를 혼낼지도 몰라.'

다르마는 침을 삼키면서 주먹을 쥐었다. 마음속으로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도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윽고 빵갈로바뜨사는 별궁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빵갈로바뜨사이옵니다. 다르마를 데려왔사옵니다."

"수고했소."

왕비가 문을 조금 연 채 다르마를 살펴보았다. 다르마는 왕비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다. 왕비가 짧게 한 마디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짬빠성에서 왔사옵니다."

"시골뜨기군."

"소승이 왕비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짬빠성 브라흐민 따님이라고요."

"어쨌든 대왕을 바로 만날 수는 없지. 빠딸리뿌뜨라 성의 공기를 더 마셔야겠어. 시골뜨기 냄새가 빠질 때까지."

빵갈로바뜨사가 놀라서 물었다.

"대왕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소승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허락은 받았지요. 하지만 이런 시골뜨기를 바로 보낼 수는 없소."

"그렇다면 소승이 데리고 갔다가 부르실 때 다시 오면 어떻겠사옵니까?"

"구루시여, 그럴 필요는 없소."

왕비는 공작새 깃으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르마는 입 안에 침이 마르고 입술이 탔다. 왕비가 무섭고 궁에서 생활할 것이 두려웠다. 왕비가 부채를 내렸다. 다시 드러난 왕비의 얼굴은 더 차가웠다. 왕비가 별궁 화원에 물을 주고 있던 궁녀를 불렀다.

"이 시골뜨기를 이발소로 보내 이발하는 일을 배우게 하라."

"아니, 왕비님. 이발은 수드라가 하는 천한 일이 아니옵니까?"

"대왕님 머리를 깎는 일이니 귀한 일이오. 이발사가 되려면 잡일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다르마는 이발사라는 왕비의 말에 기절할 뻔했다.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겨우 두 발에 힘을 주며 버텼다. 빵갈로바뜨사가 미안해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했다. 왕비가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을 때에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다.

"다르마여, 왕비 되실 분에게 이발 일을 시키다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소?"

"구루시여, 제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저는 이겨낼 거예요."

다르마는 별궁 궁녀를 따라 갔고, 빵갈로바뜨사는 탄식을 하며 아지비카교 사원으로 걸어갔다. 다르마의 눈에는 궁중 정원의 꽃들이 슬프게 비쳤다. 조금도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정원 우리 안에 갇힌 공작새가 긴 꼬리를 끌고 가면서 고개를 젖힐 때마다 꺄아악 꺄아악 하고 울었다. 빠딸리뿌뜨라 궁중 정원에는 유독 공작새가 많았다.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왕실 식탁에 오른다는 공작새였다. 〈계속〉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